

# 광주, 하반기 수출도 '코로나 먹구름'

## 광주상의, 수출기업 104곳 조사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광주지역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하반기 수출전망 역시 먹구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전 세계적 수요가 위축되는 등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대다수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올 초부터 수출 급감으로 매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수출 경기 악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 코로나19 확산세 ... 세계 각국 경기침체·보호무역 강화 철강·운송차부품 분야 특히 심각...수출금융지원 확대를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5.8%(58개사)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하반기 수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0.2%(21개사)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 기업들이 하반기 수출전망을 어둡게 바라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 여기에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업들이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75.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준거래처 수주감소'(10.3%), '수입국의 경기둔화'(6.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철강·금속'과 '운송차부품', '기계

'금형' 분야 기업들은 수출전망을 유독 어둡게 내다봤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와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안요인(복수응답)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매출감소'(37.5%)가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인상'(15.0%), '수출시장내의 가격경쟁력 악화'(1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 상반기 광주 주요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하반기까지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보다 12.4% 감소한 6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17.9%), 반도체(-17.7%), 고무제품(-15.0%) 수출이 얼어붙었다.

실제 지역 수출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의 피해 정도를 '높음'(26.9%)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다수가 '주문감소'(38.3%)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계약지연 또는 중단'(14.8%)과 '해외전시박람회 등 마케팅차질'(14.3%)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와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올 하반기 수출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출금융지원 확대와 FTA활용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기업의 수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79.97 (+28.93)
- ↑ 금리(국고채 3년) 0.802 (+0.003)
- ↑ 코스닥 835.35 (+7.78)
- ↑ 환율(USD) 1194.10 (+0.70)

##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3개월 만에 상승

### 광주 0.2%·전남 0.5% 올라 농산물·석유류 상승 이끌어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4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역 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0.2%·전남 0.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마이너스(광주 -0.2%·전남 -0.3%), 6월에는 보합(0.0%)을 나타냈다.

어개·채소·과실 등 50개 품목이 포함된 신선식품지수는 2017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신선식품지수는 광주 9%·전남 10.3%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8.4%)을 웃돌았고, 광주 상승률은 지난 2017년 8월(13.9%) 이후 가장 높았다.

제곱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은 변동이 없는 반면 광주는 0.4% 내렸고, 전남은 0.3% 올랐다.

7월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과 석유류 가격 반등이다.

장마로 출하가 줄어든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광주 9.1%·전남 15% 상승하고, 과실 가격도 각각 8.5%, 8.3% 올랐다.

전남 돼지고기 가격은 19.3% 크게 뛰는 등 축산물도 광주 4.2%·전남 10.1%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광주 8.6%·전남 9.1% 내렸지만 국제유가가 4월 저점을 찍은 뒤 상승하면서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6월 14.2%보다 줄어 들었다. 경우 가격은 광주 13.8%·전남 15% 떨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을 광주는 동결하고 전남은 인하하면서 도시가스 가격이 각각 10.5%, 10.1% 내렸다. 무상교육 정책으로 고교납입금 하락률은 광주 63.4%·전남 100%에 달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광주 3.5%·전남 4.8% 오른 반면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라 해외단체 여행비는 두 지역 모두 5.4% 떨어졌다.

한편 7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17일까지

###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10기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홍보대사에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30여명은 다음달 발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한다. 매달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우수 포상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와 사회공헌활동 참여,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활동은 비대면 방식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입욕제로 피서철 피로 풀어보세요"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러쉬' 매장에서 피서철 피로를 풀기에 좋은 입욕제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광주 총장로 일대 주얼리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구축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시 동구 총장로 일대 주얼리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기반시설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

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 받아 공용 장비·시설, 공동 창고, 작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총장로 4가·5가 일대는 광주 최대 귀금속, 보석 제조 및 유통 집적단지로 1965년

부터 자생적으로 조성됐다. 현재 관련 소상공인 65개사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얼리 산업에서 광주의 45%, 동구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집적지구에 전시판매장, 공용장비실 및 교육장과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등을 운영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주얼리 제조 기술의 계승·발전과 제조 공정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협업을 통한 발전도 기대된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 제조업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산업진흥회, 비대면 온라인 상담 상황실 운영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24시간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4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언택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은 한국광산업진흥회 3층에 마련됐다. 온라인 수출상담에 필요한 FHD 웹 카메라, 회의용 마이크 및 헤드셋 등 디지털 장비를 구축했으며, 기업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올 연말까지 국제 전시회 및 수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진흥회는 올해 해외바이어 400개사를 발굴해 국내 300개 기업과 수출상

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합상황실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보급 사업과 베트남 빈증성 국내 LED 조명 해외시범 설치 사업, 태국 랍차방시 스마트 공원 시범사업, 캐나다 식물재배 조명 수출협실 등 실질적인 기업들의 참여 속에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15개국 24개소 해외마케팅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언택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 간 제품의 신뢰를 보증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 · 목포 · 나주 · 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 최우수1등급 획득

#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새거리 현변방향 062)354-90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타이거즈 공식치과

##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현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 062)603-8000